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 전화 | 0490-795-346 | | 카카오톡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329	342	166	77
(미사 시작)	(제물 드리니)	(생명의 양식)	(주 천주의 권능과)

제 1독서 | 욥기 7,1-4, 6-7

화답송 |

- ◎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 주신다.
- (좌) 우리 하느님을 찬송하니 좋기도 하여라. 마땅한 찬양을 드리니 즐겁기도 하여라.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네. ◎
- (우)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네.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날날이 그 이름 지어 주시네. ◎
- (좌)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넘치시네. 그 지혜는 헤아릴 길 없네. 주님은 가난한 이를 일으키시고,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네. ◎

제 2독서 | 코린토 1서 9,16-19.22-23

복음 환호송 |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 1,29-39

영성체 후 묵상 |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신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을 선포하려고 떠나오신 것이라며,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라고 하시며 우리와 함께 복음의 여정을 떠나자고 요청하십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족 뿐 아니라, 일상의 삶 안에서 마주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빛과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On leaving the synagogue, Jesus went with James and John straight to the house of Simon and Andrew. Now Simon's mother-in-law had gone to bed with fever, and they told him about her straightaway. He went to her, took her by the hand and helped her up. And the fever left her and she began to wait on them.

That evening, after sunset, they brought to him all who were sick and those who were possessed by devils. The whole town came crowding round the door, and he cured many who were suffering from diseases of one kind or another; he also cast out many devils, but he would not allow them to speak, because they knew who he was.

In the morning, long before dawn, he got up and left the house, and went off to a lonely place and prayed there. Simon and his companions set out in search of him, and when they found him they said, 'Everybody is looking for you.' He answered, 'Let us go elsewhere, to the neighbouring country towns, so that I can preach there too, because that is why I came.' And he went all through Galilee, preaching in their synagogues and casting out devils.

그 무렵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종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일어나 외딴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온 갈릴래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오늘은 '기도의 여인 동정 마리아'를 만나 보겠습니다. 세상이 아직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다윗 가문의 한 남자와 약혼한 평범한 소녀에 불과했을 때, 마리아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침묵 중에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실 하느님과 지속적으로 대화 중에 있는 나자렛의 소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은총이 가득했으며, 원죄 없이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놀랍고도 특별한 소명, 그리고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폭풍우치는 바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이끌지 않았습다. 그녀는 하느님이 자신의 삶의 여정의 고삐를 잡아주시길, 그리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자신을 인도하시길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전적으로 순응했고, 그렇게 기꺼이 따르는 자세와 함께 세상에서 하느님과 관련된 위대한 사건들을 준비했습니다.

가브리엘 대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려고 나자렛에 왔을 때, 마리아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작지만 위대한 "제가 여기 있습니다"는 피조물 전체를 기쁨으로 뛰게 했습니다. 마리아처럼 열린 자세, 하느님께 열린 마음으로 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당신이 원하실 때,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소서." 곧, 하느님의 뜻에 마음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느님은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기도이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불안함을 달랠 줄 압니다. 기도는 불안, 하느님을 향한 전적인 순응으로 바꿀 줄 압니다. 저는 불안할 때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제 마음을 열어주고, 하느님의 뜻에 순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동정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는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예"가 자신에게 매우 어려운 시련들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느님이 주신 매일의 삶이 하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아듣는다면, 우리는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배웁시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다만 제 삶의 여정의 매 걸음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전 생애를 기도로 동행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초기 교회의 첫 걸음에 기도로 함께합니다(사도 1,14 참조). 마리아는 십자가의 스캔들을 겪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에 지고, 죄책감에 울던 베드로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아드님이 자신의 공동체 일원으로 부르신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성직자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기도합니다. 마리아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마리아의 기도는 곧 이뤄질 미래에 선행했습니다. 곧,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으며,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교회의 첫 걸음 단계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침묵 중에, 언제나 침묵 가운데 말입니다. 마리아의 기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존재는 그 자체로 기도입니다.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가운데 계시는 마리아는 기도 안에 현존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루카 2,19).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전해주는 복음 구절에서 주님의 어머니를 이같이 묘사했습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 마리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되새겨집니다. 곧, 기쁨으로 가득한 날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 또한 구원이 어떤 길을 통과해야 하는지 알아듣기 너무 힘든 순간들 말입니다. 모든 것은 결국 마리아의 마음에 남아 기도의 체를 통과하며, 마리아의 기도에 의해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동방박사의 선물이든, 이집트 피난이든, 그 끔찍한 수난의 금요일에 이르기까지 어머니는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느님과의 대화 안으로 가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느님 말씀에 열린 마음, 고요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느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아는 마음과 함께 말입니다.

공지 사항

1. 가자 위기 구호 성금 (Gaza Crisis Appeal)

신자분들께서 모금해주신 금액 총 \$225을 호주 카리타스로 송금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ARITAS AUSTRALIA ABN 90 970 605 069 GPO Box 9830 Sydney NSW 2001 Tax Deductible Donations can be claimed under the Caritas Australia Overseas Aid Fund.		OFFICIAL RECEIPT NUMBER R03656567	
DATE	RECEIVED FROM	PARTICULARS	AMOUNT (\$)
28/01/2024	Supporter ID: A-000448442 Korean Catholic Community Canberra	Emergency Response Fund	\$225.00
TOTAL:			\$225.00

Received with Thanks

2. 설 명절 주일미사 - '위령들을 위한 지향'

2월 11일(주일)에는 '조상님,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 은인 등 세상을 떠난 영혼'을 위한 지향을 두고 주일미사가 봉헌됩니다.

* 미사 전 30분전부터 연도(짧은 연도)와 제대 앞 분향이 있습니다.

* 미사와 연도 때의 지향 신청 안내

미사예물 봉투를 사용하여 지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이름과 세례명, 기억하고 싶은 연령의 이름(세례명)을 기재 후 교무금함에 제출

3. 재의 수요일 미사 및 성지가지 수거 안내

- 재의 수요일 미사 : 2월 14일 수요일, 오후 7시
- 집에 있는 성지가지를 성전 입구에 마련된 수거함에 2월 11일(주일)까지 넣어 주세요.

4. 사순시기 1박 2일 피정 안내

주제: "내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4)

일시: 2월 24일(토), 13:00 ~ 25일(주일), 13:00

장소: St Clement's Retreat Centre,
Kalangan Rd, Galong NSW 2585

(개인 차량 혹은 카풀을 이용하여 이동)

참가비용: 개인당 \$120

(나머지 비용은 성당 지원)

참가대상: 18세 이상부터

신청기한: 2월 5일(월), 12:00까지

참가방법: 참가신청서 작성하여 교무금함에 제출
우측 링크 통하여 온라인 신청 =>

<https://forms.gle/makCA7sLVWS6DCyT9>

QR코드 신청:



| 미사 참례자 수 |

1월 21일	유아·청소년: 12명	성인: 42명
1월 28일	유아·청소년: 10명	성인: 39명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2월 4일)	이상명 다니엘, 이재희 루시아
다음주 (2월 11일)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2월 4일)	요한반
다음주 (2월 11일)	루카반

| 우리들의 정성 | (1월 27일 ~ 2월 2일)

봉 헌 금	\$226			
교 무 금	\$770			
권요순	김정수	김천주	안영규	양명식
양홍석	윤현태	이지영	장일한	장호훈
전인철	주정자	허준		

| 기도 지향 |

- *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를 위해
- * 예비자교리 중인 박서영 자매님을 위해
-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